“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기적’ 선물하세요”

30 생명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④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5월 12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스님은 이날 시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놔 큰 감동을 줬다.

생명나눔, 5월 12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펼쳐
일면 스님 직접 시민 만나 홍보
간이식 경험담 설명으로 감동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형형색색 연등이 장엄된 서울 조계사 앞에 우정국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가 직접 거리로 나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대종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설명하며 희망등록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정성을 다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는 5월 12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스 2개를 연달아 설치, 본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장기와 조직 기증 희망등록 상담, 환자 치료비지원 설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람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은 오전부터 우정국로를 돌며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각종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참사람봉사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과 환자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 권선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나선 손석우·전선준 학생(토목공학과)은 “장기기증은 자비 실천”이라고 외치며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장기기증을 의미있는 행동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힘썼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는 가족단위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10살 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박민규·전은미 부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의미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면서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게 돼 그저 좋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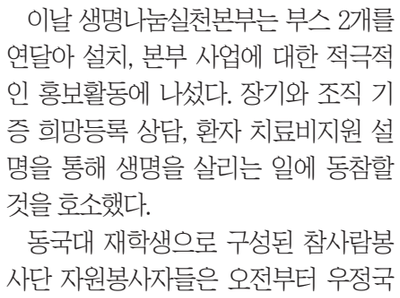
어머니와 함께 나온 이민정 씨는 “7년 전쯤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만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면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환자 치료비를 위한 CMS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담에 나선 일면 대종사는 간이식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일면 대종사는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서 “남으로부터 덤으로 얻은 삶, 남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후원자들의 자비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또 소외계층에 내민 자비의 손길은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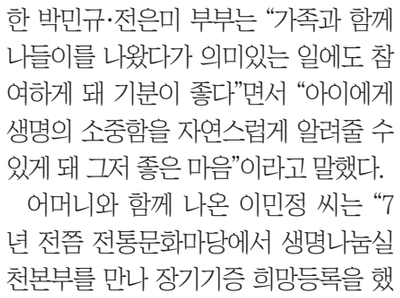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홍보뿐 아니라 불교와 연등회를 알리는데도 정성을 쏟았다. 오전부터 부모 손을 잡고 전통문화마당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 불교 체험 부스를 마련, 연꽃과 단주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체험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보냉가방과 반찬통, 마스크 등 선물도 준비해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에게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문화마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이날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20여 명,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캠페인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상균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무무형문화유산이 되고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부를 홍보하고 한국 불교문화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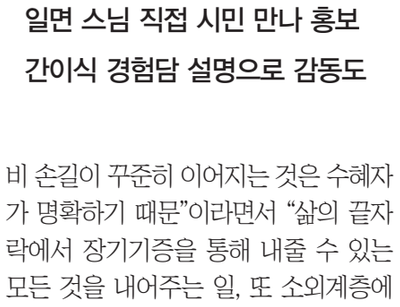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생명나눔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5월 25일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대회를 진행한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되는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는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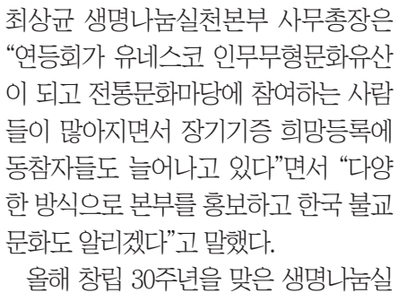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이소원, 임지민 양도 부스를 찾아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렸다.



연꽃과 단주 만들기 등 불교 체험 부스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동국대참사랑봉사단은 우정국로에서 생명나눔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면 대종사는 생명나눔 부스뿐 아니라 전통문화마당의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며 격려했다.

부처님 자비와 사랑 가득한 삶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연등이 아름다운 5월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흥겹게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르침은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셨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밝혀진 연등 하나하나가 불자님들 가정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불보살전에 기원드립니다.

두산 일면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회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5회
생명나눔 환경사랑 30
생명사랑 플로깅
2024. 5. 25 (토)
오전10시 부터 오후2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걷기코스 : 만해광장 - 남산공원 둘레길)

참가대상
청소년 및 참가를 원하는 국민 모두

참가방법
단체_ www.lisa.or.kr 접속 후 사전접수
개인_ 현장 접수

오시는 길
3 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4 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02-720-8050

준비물
비닐봉투
장갑
운동화
편한 옷차림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